한·미·일 만화 원작 영화가 대세

‘앤티크’ 이어 ‘순정만화’ ‘왓치맨’ 등 속속 제작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속속 제작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영화계의 흐름이기도 하다.

13일 개봉한 ‘서양골동양과점 앤티크’는 일본에서 170만부 이상 팔린 요시나가 후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앤티크’라는 케이크 전문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며 특히 국내 상업영화로는 드물게 게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궁’의 히로인 주지훈과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김재욱, ‘가족의 탄생’과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에 출연했던 유아인·최지호 등 ‘꽃미남 4인방’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연출자는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민규동 감독이다.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순정만화’는 인터넷 만화계의 스타 강풀의 만화가 원작이다. 강풀은 ‘타짜’, ‘식객’의 허영만과 함께 발표하는 거의 모든 작품을 충무로와 여의도에 판매하고 있는 ‘괴물 작가’다.

‘아파트’와 ‘바보’가 만화로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영화로 제작된 후에는 흥행에 실패,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다.

‘순정만화’는 30살 회사원 연우와 띠동갑 고등학생 수영, 연하남 강숙과 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29살 하경 두 커플이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로 인터넷 포탈 다음 연재 시 하루 페이지뷰가 25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모았었다.

최민식이 주연을 맡았던 ‘꽃피는 봄이 오면’을 연출했던 류장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선한 미소가 인상적인 배우 유지태가 주인공 연우 역을 맡았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이연희가 수영역으로 출연하며 연상연하 커플인 강숙과 하경으로는 채정안과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호흡을 맞춘다.

‘순정만화’는 강풀 만화의 열혈팬임을 자처하는 이승환 등 인기 가수들이 헌정 음반을 발매,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승환은 기존 발표곡인 ‘해피 웨딩송’을 ‘순정만화’에 맞게 개사 편곡한 ‘순정만화 : Ever After’를 발표했으며 토이의 객원 멤버로 참여해 ‘뜨거운 안녕’으로 관심을 받은 가수 이지형과 오지은도 헌정용 디지털 싱글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10월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매 시작 46초 만에 매진 기록을 세웠고, 현재도 인기리에 상영중인 ‘구구는 고양이다’ 역시 만화가 원작이다.

‘메종 드 히미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이누도 잇신이 연출하고 ‘노다메 칸타빌레’의 우에노 쥬리가 주연을 맡은 ‘구구는 고양이다’는 일본 순정 만화계의 거장 오오시마 유미코의 만화를 영화로 옮겼다.

3개월 짜리 고양이 ‘구구’로 인해 서로 다른 색깔의 상처를 지닌 만화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유쾌한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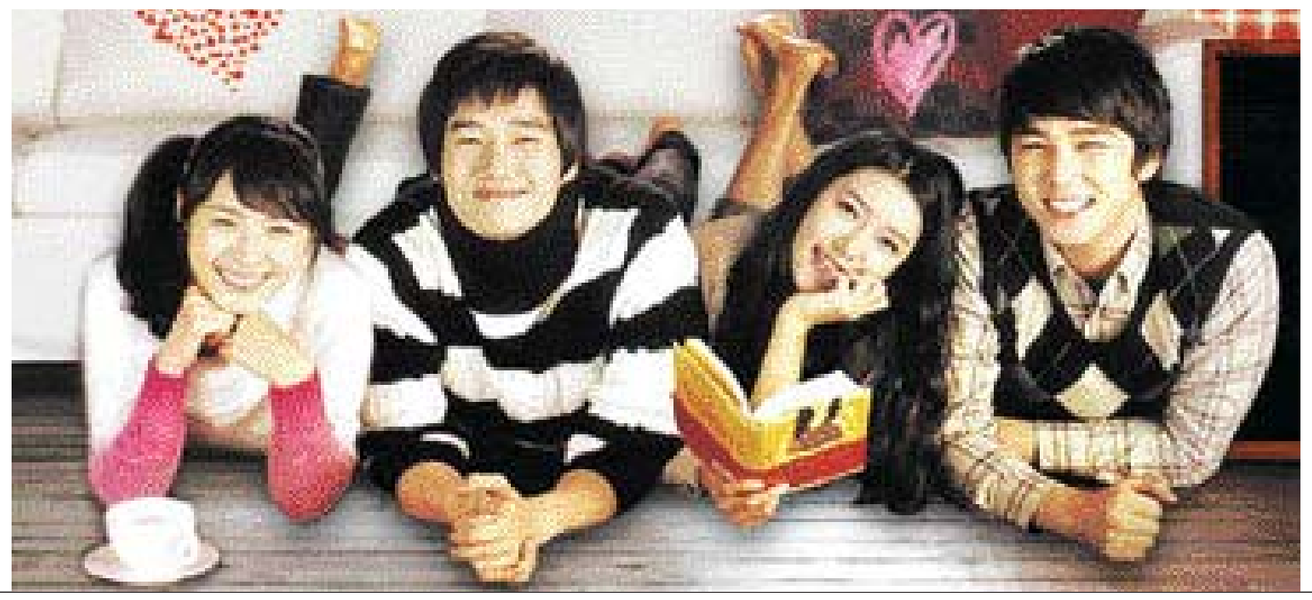
만화로는 유일하게 타임지 선정 ‘1923년 이후 발간된 100대 소설’에 포함됐고 세계 최고의 SF 권위상인 휴고상을 안겨준 앨런 무어의 ‘왓치맨’ 역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다.

최근 영화를 만든 잭 스나이더 감독이 한국을 방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왓치맨’은 극중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인물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은퇴한 히어로들이 다시 모이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기본 스토리다.

역시 프랭크 밀러의 만화가 원작인 ‘300’의 메가폰을 잡았던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인터뷰에서 “슈퍼 히어로가 실제로 존재, 현실 정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보여주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밖에 이병헌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G.I. 조’ 역시 미국에서 인기를 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액션물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멜로영화 ‘순정만화’는 ‘식객’, ‘타짜’를 쓴 허영만 작가와 함께 스타 만화가로 불리는 강풀의 만화가 원작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인 이연희·유지태·채정안·강인〈왼쪽부터〉과 만화 속 캐릭터들.

주목! 이 영화

‘미인도’

빼어난 영상미·김민선 파격 연기 주목

요즘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신윤복을 소재로 한 영화로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4대째 이어온 화원 가문의 막내딸이자 뛰어난 그림 솜씨로 오빠 신윤복의 그림을 남몰래 그리던 천재 윤정은 오빠의 자살로 인해 신윤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당대의 화가 김홍도의 제자로 들어가 그림에 몰두하던 그녀 앞에 운명같은 남자 강무가 나타나고, 윤복은 강무에게 강한 욕망과 감정을 느끼며 그 기운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하지만 제자의 재능을 사랑하고 그의 전부를 사랑하게 된 김홍도, 홍도를 향한 사랑으로 질투에 사로잡힌 기녀 설화까지 얽히면서 네 사람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게 되는데….

‘여고괴담’ 시리즈로 데뷔한 후 ‘하류인생’ 등을 거쳤던 김민선이 신윤복 역을 맡아 과감한 노출도 서슴지 않는 등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연기파 배우 김영호가 김홍도로 출연한다. 여기에 ‘사생결단’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추자현과 김남길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연출은 ‘베사메 무초’, ‘식객’의 전윤수 감독이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미인도	조선시대 천재화가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도발적인 상상력을 담은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요시나가 후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네 남자가 꾸려가는 별난 케이크 전문점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연공, 안녕 사랑하는 모든 것	2005~2006년에 걸쳐 연재된 모바일 소설을 영화화했다. 휴대전화를 계기로 학교 최고의 킹카와 사귀게 된 평범한 여고생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와인 미라클	1976년 5월 파리에서 열린 와인 시음회에서 화이트와인 부문 1위를 차지한 1973년산 샤토 몬텔레나의 탄생 과정을 다룬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하미	
007 퀀텀 오브 솔러스	46년간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007 시리즈 22번째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소년은 울지 않는다	전쟁 고아들의 척박한 삶을 다룬 시대극. 15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뱅크잡	경보장치가 24시간 동안 해제되는 로이드 은행을 털자고 의기투합한 7인의 일당을 그린 기상천외 범죄실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플라이 미 투 더 문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 못말리는 삼총사가 달나라 탐험을 떠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너를 잊지 않을거야	2001년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지하철로 뛰어든 한국청년 이수현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전체관람가.
엔터	
맨데이트-신이 주신 임무	인간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에 맞서 싸우는 퇴마사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엔터	
아내가 결혼했다	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아내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다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바디 오브 라이즈	러셀 크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액션 스릴러. CIA 요원과 테러 집단이 중동 전역을 누비며 서로를 쫓는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